04□□□_□□□□□□15□ 13. 8. 13. □□ 4:30 Page 87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5호 2013.06. pp.87~108

박완서 단편소설에 나타난 노년의 삶과 서사

A Study on Old-age Lives and Narrative in Park, Wan-seo's Short Stories

박성혜(단국대 박사수료)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단편소설에 나타난 노년의 삶과 서사
1) 노인의 실제적 삶 탐색
(1) 노년의 삶과 사랑
(2) '약수터' 와 '수의(壽衣)' 에의 집착
2) 관계의 단절과 소외의 삶
(1) 며느리와의 소통 불가능
(2) 성적(性的) 오해와 단절
3.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박완서의 소설은 다른 어떤 작가들의 경우보다도 자신의 체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어느 대담에서 "나의 문학은 내가 발 디딘 곳이다"[1] 라고 술회하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작품들은 그가 살아온 시대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해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그는 '소설은 이야기다.'라는 단순하고 소박한 생각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오직 "뛰어난 이야기꾼이고 싶다. 남이야 소설에도 효능이 있다는 걸 의심하건 비웃건 나는 나의 이야기에 옛날 우리 어머니가 당신의 이야기에 거셨던 것 같은 다양한 효능의 꿈을 걸겠다."[2]라는 믿음으로 창작을 해온 작가였다.

1) 이문재, 「나의 문학은 내가 발 디딘 곳이다」, 《문학동네》, 1999 여름호.
2) 박완서 외, 『우리 시대의 소설가 박완서를 찾아서』, 웅진닷컴, 2002, 47쪽.

04□□□_□□□□□□15□ 13. 8. 13. □□ 4:30 Page 88

박완서의 작품들을 독서하다보면, 작가가 사회의 여러 현상들에 대해 얼마나 다양한 관심과 주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쉽게 체감할 수 있다. 그가 다루고 있는 다양한 제재들과 강렬한 주제의식이 작품마다 넘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만이 지닌 독특한 서술방식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박완서의 중 · 단편 소설들을 총체적으로 조망할 때[3], 박완서의 창작 모티프가 반복적으로 지향하는 제재들은 '6 · 25 전쟁과 분단 문제', '시대현실의 해부와 비판', '노년의 삶과 서사', '페미니즘과 모성적 생명의식'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곧 박완서는 창작의 에너지를 위의 네 가지 제재와의 갈등과 문제의식에서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모티프는 바로 그러한 에너지를 창작으로 활성화시켜 주제를 형성하고 작품으로 구조화한 주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6 · 25 전쟁과 분단문제'는 전쟁의 참상과 상흔을 서술하거나[4] 분단과 이산문제를 제재로 삼고 서사화하고[5] 있다. 그리고 '시대현실의 해부와 비판'을 제재로 하는 경우에는 물질만능주의 사회현실을 해부하고 비판하거나[6] 이민의 허울과 중산층의 허위의식을 비판적 의식으로 다루고 있으며[7], 소위 '운동권'의 이중적인 실상과 이면을 고발해내기도[8] 한다.

---

3) 박완서는 생전에 100여 편의 중·단편소설, 20여 편의 장편소설, 10여 권의 산문집, 4권의 동화집 등을 남겼다.(《작가세계》, 2012년 봄호에 작가연보가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다.)

4)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작품은 「부처님 근처」(1973), 「카메라와 워커」(1975), 「겨울 나들이」(1975), 「돌아온 땅」(1977),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1989), 「그 남자네 집」(2002), 「빨갱이바이러스」(2009) 등이다.

5)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작품은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1972), 「돌아온 땅」(1977), 「아저씨의 훈장」(1983), 「재이산(再離散)」(1984), 「비애의 장(章)」(1986), 「그 여자네 집」(1997) 등이다.

6)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작품은 「서글픈 순방(巡房)」(1975), 「조그만 체험기」(1976), 「낙토(樂土)의 아이들」(1978), 「공항에서 만난 사람」(1978), 「내가 놓친 화합(和合)」(1979), 「육복(六福)」(1980) 등이다.

7)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작품은 「이별의 김포공항」(1974), 「포말(泡沫)의 집」(1976), 「움딸」(1984), 「저물녘의 황홀」(1985), 「꽃잎 속의 가시」(1998), 「주말 농장」(1973),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1974), 「재이산」(1984),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1989) 등이다.

8)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작품은 「꿈과 같이」(1978), 「사람의 일기」(1985), 「꽃을 찾아서」(1986), 「저문 날의 삽화(揷話) 1」(1987), 「저문 날의 삽화 2」(1987), 「우황청심환」(1990),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1993), 「J - 1 비자」(1998), 「거저나 마찬가지」(2005) 등이다.

04□□□_□□□□□□15□ 13. 8. 13. □□ 4:30 Page 89

이어 '노년의 삶과 서사'를 지향하는 제재의 경우에는 노인의 실존적 탐색[9]과 관계의 단절로 인한 소외의 삶을 서사화하고[10] 있다. 마지막으로 '페미니즘과 모성적 생명의식'을 제재로 하고 있는 작품들의 경우에는 여성의 정체성 찾기[11]와 모성적 생명의식의 구현[12]을 지향하는 주제의식으로 서사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박완서의 창작 모티프가 지향하는 제재들을 유형별로 주목하는 것은, 그것들이 작품의 주제를 형성하는데 구체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작품 내에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하여 작품을 구조화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박완서 소설의 네 가지 제재 선택 지향 중에서 '노년의 삶과 서사'에 주목하여 그 선택의 양상과 서사적 특징을 해당 작품들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2. 단편소설에 나타난 노년의 삶과 서사

그동안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노년의식이라든지 노년의 삶에 대한 연구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은 사실이다. 김윤식은 노인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들을 '노인성 문학'이라는 범주에 포함시켜 논하면서 최일남, 황순원, 이청준 등이 쓴 노인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과 함께 박완서의 「마른 꽃」과 「마흔아홉 살」에서 '정욕으로 표상되는 청춘의 글쓰기'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13] 한편 『너무도 쓸쓸한 당신』에 수록된 작품들을 분

9)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작품은 「천변풍경(泉邊風景)」(1981), 「저녁의 해후」(1984), 「저문 날의 삽화 4」(1987), 「저문 날의 삽화 5」(1988), 「마른 꽃」(1995),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1997), 「꽃잎 속의 가시」(1998) 등이다.

10)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작품은 「황혼」(1979), 「천변풍경(泉邊風景)」(1981), 「오동(梧桐)의 숨은 소리여」(1992), 「촛불 밝힌 식탁」(2005) 등이다.

11)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작품은 「집 보기는 그렇게 끝났다」(1978), 「울음소리」(1984), 「해산바가지」(1985), 「친절한 복희씨」(2006) 등이다.

12)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작품은 「흑과부(黑寡婦)」(1977), 「공항에서 만난 사람」(1978), 「대범한 밥상」(2006) 등이다.

04□□□_□□□□□□15□ 13. 8. 13. □□ 4:30 Page 90

석하면서 백지연은 일상의 허위와 속물심리에 대한 신랄한 관찰이 계속되는 동시에 황혼기에 대한 성숙한 통찰이 있다고 보았으며,[14] 김치수는 '자신의 늙어감에 대한 자각의 솔직한 고백'이라든지 '타인과의 단절된 삶을 사는 불행한 모습' 등으로 노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고 했다.[15] 그리고 전흥남은 박완서의 『저문 날의 삽화』에 수록된 단편들을 '노년소설'로 보고 '사소하고 사사로운 주변부에 대한 묘사가 많음'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노인의 화법'을 닮았다고 주장했다.[16]

앞의 연구들이 특정 주제에 부합되는 몇 편의 작품만을 선택하여 분석하고 있는 데 비해, 이수봉의 「박완서 노년소설 연구」는 박완서 노년소설 전반에 대해 연구한 논문으로 주목된다.[17] 그러나 노년소설이라는 개념 규정부터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겨져 있다. 게다가 '과거의 긍정과 세속적 가치의 수락', '타인의 시선과 욕망의 경쟁', '탈출의 공간과 경로'라는 주제로 지나치게 규정하여 작품을 유형화시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연구는 선행 연구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박완서 중 · 단편 소설의 텍스트 자체에 대한 치민한 독서를 통해 노년의 삶과 서사가 어떤 양상으로 그려지고 있는가를 주목했다. 박완서의 중 · 단편소설 전체를 통해 살펴 본 결과, 그녀의 작품에 제재로 선택된 노년의 삶과 서사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띄고 있었다. 하나는 노인의 실존을 탐색해 가는 모습을 섬세하게 서술한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관계의 단절과 소외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었다.

---

13) 김윤식, 「한국 문학 속의 노인성 문학」, 『소설, 노년을 말하다』(김윤식, 김미현 엮음), 황금가지, 2004.
14) 백지연, 「황혼의 삶을 향한 따뜻한 시선」, 《동서문학》, 1999 봄.
15) 김치수, 「깊고 통렬한 삶의 진실」, 《동서문학》, 1999 가을.
16) 전흥남, 「박완서 노년소설의 담론 특성과 문학적 함의」, 《국어문학》 제42집, 국어문학회, 2007.
17) 이수봉, 「박완서 노년소설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04□□□_□□□□□□15□ 13. 8. 13. □□ 4:30 Page 91

1) 노인의 실제적 삶 탐색

박완서는 노년의 부부와 노년의 사랑, 그리고 은퇴한 노인들의 삶의 모습 등을 통해 노인의 실제적 삶을 탐색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과 며느리(또는 아들내외)와의 소통 불가능이라든지 그들로부터 추방된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단절과 소외의 삶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1) 노년의 삶과 사랑

먼저 노인의 실제적 삶을 탐색하는 제재는 두 가지 유형을 띠고 있는데, 그 하나는 노년의 삶과 사랑을 제재로 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저녁의 해후」(1984), 「저문 날의 삽화 4」(1987), 「저문 날의 삽화 5」(1988), 「마른 꽃」(1995),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1997) 등이 이들 유형에 속한다.

「저문 날의 삽화 5」는 자식들을 기다리면서도 자식들에 대한 기다림 자체에서는 멀어지려고 하는 노부부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동네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는 큰마음 먹고 더 멀리 나가자고 한다. "당신은 숲과 산과 개울물 보고 이 집에 반했다지만, 난 시내에서 멀고 교통 불편한 게 첫 눈에 듭디다."라고 말하는 아내의 속내에는 시내에서 가깝고 교통이 편하면 자식들을 더 많이 기다리게 된다는 이면이 숨겨져 있다.

> 당신하고 나하고는 시내에서 멀찌거니 교통이 불편한 데 살아야 마음이 편해요. 내 말뜻 아직도 못 알아들으시겠수. 멀리 있는 자식은 엎어지면 코 닿을 데 있는 자식처럼 매일매일 기다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식들 쪽에선 또 얼마나 편하겠수. 부모님이 시골 사셔서 자주 못 찾아뵙는다는 핑계가 생겼으니. 오잖는 자식 기다리는 것처럼 지치고 치사한 일이 있는 줄 아슈. 여기 와서 그

04□□□_□□□□□□15□ 13. 8. 13. □□ 4:30 Page 92

못할 노릇 안 하니 살 거 같아요. 다시는 안 하고 싶은 게 그 노릇이라우.(155~156쪽)[18)]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멀리 있는 자식은 엎어지면 코 닿을 데 있는 자식처럼 매일매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자식들 쪽에서도' 그만큼 편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란다. 노부부의 심리를 매우 섬세하게 서술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저문 날의 삽화 4」에는 뒤늦게 운전면허를 따고, 중고차까지 구입하여 친정 나들이를 가는 도중 고속도로에서 시동이 꺼져버린 에피소드가 등장한다. 순찰차가 와서 시동을 걸어보더니 배터리 용량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했고, 견인차를 부르면 기본요금이 칠만 원이라고 했다. 마침내 이 노부부는 인터체인지까지 차를 밀기로 한다.

"여기서 제일 가까운 인터체인지가 얼마나 됩니까?"

"왜 밀고 가시게? 참 그래도 되겠군. 바로 조오기예요. 일 킬로도 안 남았을 겁니다."

당신 어쩌려고? 순찰차가 가버리자 남편이 어처구니없다는 듯이 나를 힐난했다. 인터체인지까지의 거리를 물은 건 나였기 때문이다. 우리 차가 바보처럼 견인차에 끌려가는 걸 보고 싶지 않은 나의 급작스러운 변덕이랄까 애정을 어찌 설명할까.

"돈 아깝잖우. 칠만원 버는 셈 치고 밀어봅시다."

남편은 앞에서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한 손으로 밀고 나는 뒤에서 힘껏 밀었다. 바퀴 달린 물건이라 생각보다는 힘이 덜 들었다. (중략) 인터체인지는 곧 나타났지만 완만한 오르막길이었다. 마지막으로 용을 쓰기 위해 잠시 숨을 돌리는 사이에 남편이 말했다.

18) 작품 원문 인용은 참고문헌(기본자료)에 밝힌 전집과 소설집에 수록된 쪽수를 활용함.

04□□□_□□□□□□15□ 13. 8. 13. □□ 4:30 Page 93

"당신 생각나? 우리가 미아리고개 밑에 처음 집 산 해 김장 때 배추 리어카 밀던 일."

이상한 일이었다. 나도 방금 그 생각이 난 참이었다.

—「저문 날의 삽화 4」(129쪽)

인터체인지까지 차를 밀고 가겠다고 나선 '나'의 급작스러운 결정은 '우리 차가 바보처럼 견인차에 끌려가는 걸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 고장 난 중고차에 아내는 자신과 남편의 실체를 동일화했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겉으로는 태연하게 '칠만 원 버는 셈'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힘든 차밀기 노역을 치루면서 이 부부는 결국 '미아리고개 밑에 처음 집 산 해 김장 때' 리어카 품삯 아끼려고 리어카만 빌려서 손수 나르던 일을 떠올리게 된다. 곧 노부부의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 작가는 노인의 실제적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노부부의 실제적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소 닭 보듯' 하는 남편에게 대접 받을 수 있는 길은 '아들을 낳고 시부모님의 눈에 드는' 것이었으며, 아내(어머니)는 그걸 해냈다. 게다가 아버지가 '갈아들이는 소실'에 대해서도 전혀 투기하지 않고 마치 '성군의 중전마마처럼' 품위 있고 당당했던 어머니가 암환자 말기가 되어 '괄약근이 열린 채' 다물 줄 모르게 되었다.

뒤늦게 '어머니는 지금 말기 암환자고, 남은 명이 다섯 달도 안 될 거'라는 말을 듣고 아버지는 평생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

여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그 흐느끼는 음성을 통해 여지껏 들리던 그 이상한 잡음도 복받치는 울음을 참는 소리라는 걸 알아차렸다. 그런데도 나는 웃음이 폭발할 것 같아 얼른 전화통을 손바닥으로 틀어막고 방바닥에 뒹굴고 말았다. 나중에 보니까 통화가

04□□□_□□□□□□15□ 13. 8. 13. □□ 4:30 Page 94

끝난 어머니도 아픈 배를 움켜쥐고 그렇게 웃고 있었다.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통화를 생각하고 웃음을 걷잡지 못했다. 어머니는 의사가 예언한 생존 기간도 미처 못 채우고 돌아가셨지만 칠십에 처음 들은 사랑의 고백 때문에 그 동안을 즐겁게 보내셨다. 똥구덩이에 빠져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143쪽)

위 서사부분에는 아버지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이 화자의 간접적인 개입을 통해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웃음이 폭발할 것 같은 '나'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통화를 생각하고 웃음을 걷잡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웃음을 동반한 비극적 아이러니로 다가온다. 작가는 바로 그 아이러니 속에 두 노인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마른 꽃」에는 이성에 대한 사랑의 심리가 섬세하게 펼쳐지고 있다. 내년이 환갑인 일인칭 화자인 '나'는 친정 조카 결혼식에 왔다 가는 길이었다. 막차까지 매진된 터미널에서 간신히 '차표를 무르러 오는 노인'을 통해 표를 구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그'를 만나 같은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게 된다. '하루에 먼 거리를 왕복하느라 상당히 지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일까, 하는 호기심이 내 의식의 한가닥을 계속 잠들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심리묘사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그에게 두근거리는 관심을 갖게 된다. 버스는 본격적으로 밀려 자정이 훨씬 넘어서야 서울에 도착했는데, 그동안 '애들처럼' 수다를 떨었고, 그들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다.

댁이 어디시죠? 그가 물었다. 고덕 쪽이라고 대답했다. 이럴 수가, 우리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다. 아무렇지도 않은 동네였다. 그러나 그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을까? 가슴이 소녀처럼 발랑발랑 뛰었다. 아직도 동네 외곽에 많이 남아 있는 아름다운 숲과 꽤 괜찮은 산책로가 반사적으로 떠올랐다. (30쪽)

04□□□_□□□□□□15□ 13. 8. 13. □□ 4:30 Page 95

그를 만나기 위해 아침 산책을 나가기도 했고, 첫눈이 오는 날은 마침내 카사노바하고 비슷하게 분위기가 고급스러운 바에서 괜히 잔을 부딪치며 위스키를 마시기도 했다. (34쪽)

크리스마스에 나는 머플러를 선물로 준비했는데 그는 나에게 스카프를 선물했다. 둘 다 야한 것이었다. 실용보다는 주고받을 때 어떡하면 상대방을 놀래키고 즐겁게 해주나를 더 염두에 두고 골랐다는 걸로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닮은꼴이었다. (36쪽)

환갑을 앞둔 주인공 '나'의 그를 향한 마음과 심리적 동요 상태를 차분하면서도 섬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작가는 노년의 사랑에 대한 정서를 늙지 않는 소녀의 어떤 근원적인 정서의 흐름으로 진행시킴으로써 노년의 삶을 실제적으로 서사화하고 있는 것이다.

「저녁의 해후」에는 예순 다섯인 반신불수가 된 남편과 조카딸과 함께 살고 있는 '나'가 등장한다. 조카딸 맞선 자리에 나갔다가 상대 남자의 아버지가 예전에 송도에 살 때 선을 보았던 남자임을 알게 되었다. 양가의 허락이 떨어져 두 사람의 교제가 한 달 남짓 이어졌다가 '궁합'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통고가 그의 집으로부터 와서 끝내 성사되지 못했었다. 이 심정을 작가는 '나는 그때 일을 초조(初潮)의 기억처럼 평생 동안 지우지 못했다. 비록 상처는 아니더라도 젊은 날을 긋고 지나간 굵은 획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들은 택시를 타고 송도 남쪽에서 북으로 송악산을 바라보고 서 있는 용수산이란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했다.

나는 발딱 일어서면서 날카롭게 말했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 보고 용수산을 나와 골목길을 종종걸음쳤다.

"송여사, 송여사, 나 좀 봐요, 송여사."

04□□□_□□□□□□15□ 13. 8. 13. □□ 4:30 Page 96

그거 뒤에서 숨차게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못 들은 척하고 걸음을 더욱 빨리했다. 열아홉 살 먹은 처녀처럼 앙칼진 앙심이 그를 다시 사각모 쓴 청년으로 만들고 있었다. 나는 정말 열아홉 살 적처럼 날쌔게 달렸고, 열아홉 살 적처럼 붙들릴 꼬리를 살짝살짝 날름대고 있는지도 몰랐다. 마침내 나는 꼬리를 밟혔다. 우린 다시 마주 보았다. 그의 대머리는 아직도 놋대접처럼 견고하게 빛나고 틀니가 버텨주는 입가와 턱은 완강하건만도 얼굴 한가운데가 무너져내린 것처럼 비참하고 무력해 보였다. 나는 그의 늙음을 직시했다. 환상은 사라지고 그의 늙음이 어쩔 수 없는 친근감으로 다가왔다.

"부탁이 있어요. 제발 거절하지 말아요. 시간을 좀 줘요. 오늘로 끝날 수 있는 일이니까. 한 군데만 더 꼭 같이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어딘데요?"

나는 부드럽게 물었다.

"임진각에 같이 가고 싶어요." (114쪽)

위의 서사적 묘사에서 '나'와 '그'의 애틋한 심리상태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열아홉 살 먹은 처녀처럼 앙칼진 앙심'과 '환상은 사라지고 그의 늙음이 어쩔 수 없는 친근감으로' 다가오는 두 가지의 괴리 속에서 현실을 직시하는 한 늙은 여인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다. 작가의 섬세한 서사와 심리묘사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2) '약수터'와 '수의'에의 집착

노년의 삶을 실제적으로 탐색하는 박완서의 모티프가 지향하는 또 다른 제재는 「천변풍경(泉邊風景)」(1981)과 「꽃잎 속의 가시」(1998)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노인의 실제적 삶과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약수터'와 '수의'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고 있다.

04□□□_□□□□□□15□ 13. 8. 13. □□ 4:30 Page 97

「천변풍경」은 육십이 된 해직교수 '배우성' 씨를 주인공으로 설정한다. 그는 새벽이면 약수터에 오르며, 아직 정식회원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지위를 첫째 조건으로 삼는' '백수회(百壽會)'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만장일치로 의결된 상태다. 가장 가깝게 지내는 '조의원'이 열네 명의 회원을 일일이 열거했는데 모두가 '이름은 생략되고, 성(姓)은 희석되고 사회적 지위만이 끈끈하게 농축되어' 있다.

> 그런 고급의 호칭은 물론 그들의 아득한 과거의 것이었고, 과거 중에서도 가장 화려했던 시기의 것일 뿐 현재의 그들관 아무런 상관도 없었다. 마치 뱃속에서부터 국회의원이었던 것처럼 그 방면의 사정이라면 도맡아서 아는 체하는 조의원만 해도 그가 국회의원이었던 적은 단 한 번, 그것도 5·16 전의 몇 달 동안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것을 뺀 나머지 그의 삶의 행적에 대해 약수터 친구 따위가 짐작할 만한 단서를 내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157쪽.)

약수터에 모이는 퇴직한 노인들의 보편적인 실상을 '조의원'의 묘사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는 서사이다. 이 '백수회'에는 유일한 여성인 '노여사'가 있는데, 그녀는 비록 조건에 맞지 않지만, '아들들의 사회적 지위'가 쟁쟁하고, 본인도 '나라(奈良) 여고사(女高師)' 출신이기에 회원자격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꽃잎 속의 가시」에서는 6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간 언니가 등장한다. 그동안 한 번도 고국 나들이를 하지 않다가, 언니가 미국에서 받은 첫 손자이자 장손의 결혼식 때 처음으로 고국에 왔다. 그런데 그 언니는 '상표도 안 뗀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루이뷔통 새 여행가방'을 신주단지 모시듯 했다. 식구들은 그 가방 속을 몹시도 궁금해 했다. 마침내 언니는 어느틈에 제물장 속에 넣어두었던 그 '루이뷔통 가방'을 손수 꺼냈다.

04□□□_□□□□□□15□ 13. 8. 13. □□ 4:30 Page 98

> 뒤따라 온 식구들이 둥글게 에워싼 한가운데서 언니는 답답하도록 느리고 서툴게 가방을 열었다. 마치 가방 밑에 용수철이라도 장착된 것처럼 안의 것들이 둥실 부풀어올랐다. 대나무숲을 스친 미풍 같은 상쾌한 요소와 함께 그것들이 코끝까지 부풀어오를 것 같은 환각 때문에 우리는 다들 비명을 억누르며 뒤로 한 걸음씩 물러났다. 누런 베옷들이었다. 우리가 그 느닷없는 이물감을 미처 어째볼 새도 없이 언니는 그 안의 것들을 한 가지씩 끄집어내면서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원삼, 당의, 천금, 지요, 멱목, 악수…… 그것들은 수의였던 것이다. (224쪽)

여행 중에도 언제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다니는 그 가방을 열고 속의 내용물을 하나씩 꺼내는 언니의 모습은 마치 신성한 종교의식을 치르는 듯하다. 그 속에는 바로 '윤달 낀 해를 손꼽아 기다렸다가 장만한' 한국산 안동포로 만든 '수의'가 담겨있었다. 언제 어디에서 죽을지 몰라 항상 소중하게 끼고 다니는 언니의 모습은, 죽음과 항상 가까이 접해 있는 노인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박완서는 노부부의 사랑과 이성에의 관심을 통해서, 또는 은퇴한 노인들의 풍경화와 수의를 소중하게 지니고 다니는 한 노인을 통해서 노년의 삶을 실제적으로 탐색하고 있는 것이다.

2) 관계의 단절과 소외의 삶

박완서의 중 · 단편소설에 나타난 노년의 삶과 서사의 모티프로 지향하고 있는 또 다른 제재는 관계의 단절과 소외의 삶을 제재로 한 작품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된 작품들은 주로 노인과 며느리(또는 아들내외)와의 소통 불가능이라든지 그들로부터 추방된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성적 오해와 단절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04□□□_□□□□□□15□ 13. 8. 13. □□ 4:30 Page 99

(1) 며느리와의 소통 불가능

노년의 삶과 서사의 모티프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관계적 삶에서 나타나는 제재를 지향하기도 한다. 관계의 단절과 소통 불가능의 삶을 며느리(또는 아들내외)와의 소통 불가능으로 서사하고 있는 작품으로는 「천변풍경(泉邊風景)」(1981)과 「촛불 밝힌 식탁」(2005)을 들 수 있다.

초등학교 교장 자리에서 퇴직한 지 오년 남짓 된 '나'가 주체로 등장하는 「촛불 밝힌 식탁」은 자식 곁에 가까이 가서 살고 싶어 하는 부부의 마음을 차분하게 잘 이끌어간 작품이다. 이들 부부는 오랫동안 떨어져 살던 아들 내외와 가까이 살고 싶어 낯선 서울로 이사를 와서 앞 베란다에서 뒤 베란다를 바라볼 수 있는 앞뒤 동으로 집을 마련했다.

발단은 '마누라가 깜짝 놀라면서 좋아할' 선물로 소년 소녀의 머리 꼭대기로 심지가 나와 있는 귀여운 인형 같은 양초 한 쌍을 사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것은 '서로 불빛을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서 산다는 것, 바쁜 자식과 할 일 없는 늙은이끼리 이보다 더 좋은 소통의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아내는 내 새끼 좋아한다고 음식을 해서 나르는 재미를 붙였고, 가끔 허탕치고 돌아오는 아내에게 '그냥 무턱대고 가면 어떡해?'라고 핀잔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아들네의 불 꺼진 창이 딴 집의 불 꺼진 창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슬며시 산책 나가는 척 혼자 아들네 아파트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고,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안에서 '웅성대는 인기척'을 느꼈고 '현관문에 달린 동그란 렌즈'가 비정한 외눈으로 변하는 걸 알았다. 마침 아들네 앞집 907호 여자가 아기를 안고 나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다. '나'는 그 여자에게 '908호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왔나 보죠?'라고 물었다.

"앞집 선생님이요? 들어오셨는데. 방금 전에 저희 집으로 파 한 뿌리 얻으러

04□□□_□□□□□□15□ 13. 8. 13. □□ 4:30 Page 100

오신 걸요.”

마누라도 알건 알아야 한다. 하나 나처럼 충격적으로 알게 하고 싶진 않다.

우리도 젊은이들처럼 무드 한번 잡아봅시다. 이러면서 온 집안의 전깃불을 다 끄고 소년 소녀가 마주 보고 생긋 웃는 형상의 아름다운 한 쌍의 양초로 식탁을 장식한다면 알아들을까.

마누라에게는 알아듣는 것보다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쇼윈도에 비친 내 모습이 두 개의 양초밖에 안 들었다기에는 너무도 무겁게 처져 보였다. (196쪽)

위의 내용은 소설의 결말부분이다. 작가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속이려고 하는 아들네 식구들의 눈속임을 통해 노부부의 마음이 여지없이 상처받는 장면으로 서사하고 있다. 그러나 더 깊이 잠재된 의미는 아내(‘마누라’)의 마음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배려하려 하는 주인공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천변풍경」에도 노인의 속내와 전혀 소통되지 않는 며느리의 대사가 강한 어조로 나타난다. 은퇴자들의 모임인 ‘백수회’ 회원이 되기 위해 불문율의 절차가 있는데, 그것은 신입회원이 모든 회원을 집으로 초대하여 조촐한 술상을 차리는 일이다. 주인공 ‘배우성’ 씨는 그 얘기를 어렵게 아들에게 꺼냈고, 손자가 문을 열어주어 소리 없이 집 안으로 들어설 수가 있었을 때 마침 며느리가 언성을 높이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뭐라구요? 백수회라구요? 날더러 그 백수흰지 백 살까지 살고 싶어 환장한 노인들의 망령흰지의 뒤치다꺼리를 하라구요? 당신 아버지 이제 육십이에요. 백 살을 사시면 도대체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시겠단 소린 줄 알아요? 자그마치 사십 년이란 말예요. 그래서 하루도 안 거르고 매일 아침 산에 오른다, 약수를 퍼마신다, 극성을 떨었던 거예요. 아유 지긋지긋해, 아유 내 팔자야. (177쪽)

04□□□_□□□□□□15□ 13. 8. 13. □□ 4:30 Page 101

비속어가 난무하는 며느리의 탄성을 통해 작가는 가족 간의 관계적 삶에서 철저하게 단절된 한 은퇴자 노인의 소외를 서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며느리는 '자그마치 사십 년'을 뒤치다꺼리할 수도 있다는 탄식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것은 정작 노인에게 더 큰 두려움과 고통이라는 것을 작가는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이 소설의 발단부분에는 해직당한 홀아비 교수인 그가 새벽마다 약수터에 오르기 위해 현관문을 나설 때마다 "'자칭 허약하고 예민한 신경을 가지고 있는' 며느리 정란 여사의 새벽의 안면(安眠)을 보호해주기 위해 온 신경을 다 쓴다"는 서술적 묘사가 있다. 작가는 그만큼 '배우성'이라는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노년의 관계적 삶과 소외를 섬세하게 서사화하고 있는 것이다.

(2) 성적(性的) 오해와 단절

관계의 단절과 소외의 삶을 지향한 모티프는 노인의 성적 오해와 관련한 제재를 다루기도 하는데, 「황혼」(1979)과 「오동(梧桐)의 숨은 소리여」(199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혼」에는 아들 내외와 두 손자와 함께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늙은 여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요즘 그 늙은 여자는 입맛이 없고 신트림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 '명치께를 쓸어보고 주물러보는 버릇'이 생겼다.

그러던 어느 날 늙은 여자는 우연히 자기 방 전화기를 통해 젊은 여자의 전화통화를 엿듣게 되었다. 명치 얘기를 하면서 젊은 여자는 '노인네가 왜 그렇게 자기 살 만지는 걸 바치는지 딴 건 다 참을 수 있어도 그것만은 정말 못 참겠더라'고 말하고 있었다. 저쪽에서는 '느네 노인네 말야. 외아들의 홀시어머니인데 그 동안 어째 너무 구순하다 싶더니. 그게 바로 억압된 성적인 욕구불만의 표현일 거야.'라고 맞장구하고 있었다.

늙은 여자는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방에 있다가 "안절부절 아들이 문병 들어와 주길 기다리다 다시 쓰러졌다.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

04□□□_□□□□□□15□ 13. 8. 13. □□ 4:30 Page 102

면서 명치 속이 까진 살갗처럼 싱싱하게 쓰려왔다. 여자는 반듯이 누워서 명치를 쓸어봤다.” 이러한 장면이 서사되고 곧바로 며느리의 다음과 같은 목격이 이어진다.

> 어느 틈에 밖의 일가 단란의 소리가 멎고 늙은 여자의 방문이 소리없이 열렸다. 기다리던 아들이 아니라 젊은 여자였다.
>
> 그때까지 늙은 여자의 손은 명치 속에서 응어리를 찾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자위를 하다가 들킨 것처럼 화들짝 놀랐다. 젊은 여자 역시 자위의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고개 먼저 돌리고 야릇한 미소를 짓더니 말없이 나가버렸다. (50쪽)

기다리던 아들이 아니라 ‘젊은 여자’가 소리 없이 방문을 열었다. 그때 마침 ‘늙은 여자’는 명치 속에서 열심히 응어리를 찾고 있어서 ‘자위하다 들킨 것처럼’ 놀랐고, ‘젊은 여자’는 ‘자위의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야릇한 미소를 짓다 나가버렸다. 작가는 이처럼 명치께를 쓰는 행위와 자위하는 행위의 대조를 통해 관계의 단절과 소외의 삶을 서사화 한 것이다.

「오동의 숨은 소리여」에는 칠십 노구의 ‘김노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는 죽은 마누라가 죽기 전에 신신당부한 말, ‘큰애네 가 계시고, 절대로 잔소리 하지 말고, 걔들이 아무리 헤프게 살아도 못 본 척 참고, 손자들한테도 그냥 오냐오냐 예뻐만 하지 행여 훈육할 생각은 말라’는 대로 살고 있다.

그런데 파출부 아줌마의 외아들이 노조 일에 앞장섰다가 구사대한테 폭행당해 죽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아줌마에 대한 연민의 정이 많아져 가끔 아줌마에게 돈 봉투를 준다든가 그녀의 수고를 덜어주고 싶어 하기도 했다.

하루는 지방에 사는 며느리의 친정 동생이 남매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했다. 며느리는 모처럼 회포를 푼다며 김노인더러 아이들을 좀 데리고

04□□□_□□□□□□15□ 13. 8. 13. □□ 4:30 Page 103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다섯 살짜리 계집애만 노인과 함께 하게 되었고, 다른 녀석들은 저희들끼리 어울려 다녔다. 마침 어디선지 팡파르가 울렸고, 어린이를 위한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김노인은 그 중 고적대의 귀여운 한 아가씨와 눈이 마주쳐 정신이 팔린 사이 아이를 잠시 잃어버렸다가 방송이 나와 찾게 되었다.

어느 날 화장실에 간 김노인은 거실에서 아들 며느리가 두런거리는 소리를 듣고 갇힌 것처럼 밖으로 나오질 못했다.

> "그러니 이 노릇을 어째요?"
>
> "난 암만 해도 믿을 수가 없다니까."
>
> 아들의 목소리가 사뭇 짜증스럽고 침통했다.
>
> "저도요. 아줌마가 노인네가 치근덕대 못살겠다고 하소연할 때만 해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다니까요. 그 엉큼한 여편네가 혹시 재산이나 있는 노인넨 줄 알고 지가 먼저 꼬리를 친 게 아닌가 하구요. (중략)
>
> "당신이 버릇을 그렇게 들였으니까 그 여편네가 애먼 노인을 잡고 늘어지는 거 아냐?"
>
> "당신이 그렇게 나올 줄 알고 내가 그 동안 아줌마 얘긴 덮어둔 거였어요. 그렇지만 이번엔 아이들이 본 거예요. 자그만치 세 아이가 똑똑히 보았대요. 스무 살도 안 된 쇼걸을 침을 흘리고 따라다니느라 아이까지 잊어버리고, 아이 챙피해. 오죽 놀랐으면 그날 밤에 나리가 경기를 다 했겠어요? 당신도 봤잖아요." (338~339쪽.)

명치께를 쓸어보는 행위를 자위하는 행위로 단정하는 「황혼」에서의 며느리와 파출부 아줌마에게 보낸 연민의 정을 치근덕거림이나 아줌마의 꼬리침으로 단정하는 「오동의 숨은 소리여」에서의 며느리는 매우 닮아 있다. 작가는 며느리의 불효나 위세를 비판하거나 고발하고자 한 의도로 그러한 에피소드를 구성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사회나 가족으로부터 소

04□□□_□□□□□□15□ 13. 8. 13. □□ 4:30 Page 104

외되고 단절되어 가는 노년의 삶과 서사를 시대적 현실의 해부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3. 나오는 말

박완서의 작품들을 총체적으로 조망할 때, 그녀는 주로 6 · 25전쟁과 분단문제, 물질만능주의 사회현실과 중산층의 속물적 허위의식 비판, 노인문제와 여성문제, 모성의식과 생명주의 의식 등 자신의 전쟁체험과 1970년대 이후 질곡의 현대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제재들을 소설 속에서 다루어온 작가였다. 따라서 박완서의 창작 모티프가 반복적으로 지향하는 제재들은 '6 · 25 전쟁과 분단 문제', '시대현실의 해부와 비판', '노년의 삶과 서사', '페미니즘과 모성적 생명의식'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곧 박완서는 창작의 에너지를 위의 네 가지 제재와의 갈등과 문제의식에서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모티프는 바로 그러한 에너지를 창작으로 활성화시켜 주제를 형성하고 작품으로 구조화한 주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 연구는 박완서 소설의 네 가지 제재 선택 지향 중,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노년의 삶과 서사'에 주목하여 그 선택의 양상과 서사적 특징을 해당 작품들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 것이었다.

박완서의 중 · 단편소설 전체를 통해 살펴 본 결과, 그녀의 작품에 제재로 선택된 노년의 삶과 서사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띄고 있었다. 하나는 노인의 실제적인 삶을 탐색해 가는 모습을 섬세하게 서술한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관계의 단절과 소외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었다.

우선 박완서는 노년의 부부와 노년의 사랑, 그리고 은퇴한 노인들의 삶의 모습 등을 통해 노인의 실제적인 삶을 탐색하고 있었다. 아울러 노인과 며느리(또는 아들내외)와의 소통 불가능이라든지 그들로부터 추방된

04□□□_□□□□□□15□ 13. 8. 13. □□ 4:30 Page 105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단절과 소외의 삶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었다.

먼저 노인의 실제적인 삶을 구체적인 제재로 하고 있는 작품으로는「천변풍경」,「저녁의 해후」,「저문 날의 삽화 4」,「저문 날의 삽화 5」,「마른 꽃」,「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꽃잎 속의 가시」 등이 있었다.

한편 노년의 삶과 서사의 모티프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관계적 삶에서 나타나는 제재를 지향하기도 했다. 관계의 단절과 소통 불가능의 삶을 서사하고 있는 작품으로는「황혼」,「천변풍경」,「오동(梧桐)의 숨은 소리여」,「촛불 밝힌 식탁」 등을 들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어디까지나 박완서 소설에 대한 제재론적 접근을 체계화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박완서 소설의 다른 제재 지향 양상들, 즉, '6 · 25 전쟁과 분단문제', '시대현실의 해부와 비판', '페미니즘과 모성적 생명의식' 등에 대한 연구도 이러한 제재론적 접근으로 이루어진다면, 박완서 소설 전반의 제재 지향 양상이 체계화 될 수 있을 것이다.

04□□□_□□□□□□15□ 13. 8. 13. □□ 4:30 Page 106

참고문헌

1. 기본자료

「황혼」,《뿌리 깊은 나무》, 1979, 3.

「천변풍경」,《문예중앙》, 1981, 봄.

「저녁의 해후」,《현대문학》, 1984, 3.

「저문 날의 삽화 4」,《창비 1987》, 부정기 간행물.

「저문 날의 삽화 5」,《소설문학》, 1988, 1.

「오동의 숨은 소리여」,《현대소설》, 1992, 봄.

「마른 꽃」,《문학사상》, 1995, 1.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라쁠륨》, 1997, 봄.

「꽃잎 속의 가시」,《작가세계》, 1998, 봄.

「촛불 밝힌 식탁」,『박완서 외 여성작가 17인 신작소설 촛불 밝힌 식탁』, 동아일보사, 2005.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전6권) 2판 5쇄, 문학동네, 2011.

『친절한 복희씨』(박완서 소설집), 문학과 지성사, 2008.

2. 연구논저

김윤식 · 김미현 엮음,『소설, 노년을 말하다』, 황금가지, 2004.

김치수,「깊고 통렬한 삶의 진실」,《동서문학》, 1999, 가을.

박완서 외,『우리 시대의 소설가 박완서를 찾아서』, 웅진닷컴, 2002.

백지연,「황혼의 삶을 향한 따뜻한 시선」,《동서문학》, 1999, 봄.

이문재,「나의 문학은 내가 발 디딘 곳이다」,《문학동네》, 1999, 여름.

이수봉,「박완서 노년소설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전흥남,「박완서 노년소설의 담론 특성과 문학적 함의」,《국어문학》 제42집, 국어문학회, 2007.

04□□□_□□□□□□15□ 13. 8. 13. □□ 4:30 Page 107

Abstract

A Study on Old-age Lives and Narrative in Park, Wan-seo's Short Stories

Park, Sung hye

From 1970 when she won a literary award in《Women Donga》magazine's full-length novel contest for lady writers with a novel『The Naked Tree』at her age of 40 to her death in 2011 at her age of 81, Park, Wan-seo left so many works in quantitative aspect. Through her works overall, topics which her creation motifs repeatedly focused can be categorized as 'Korean War and division of the nation', 'analysis and criticism of reality of ages', 'old-age lives and narrative', and 'feminism and maternal awareness of life'. This means that Park was motivated to write by conflicts between those topics and critical mind about them.

This research focuses on 'old-age lives and narrative' of four topics of Park's novels mentioned on last paragraph.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clarify aspects on the topic and characteristics of narrative. It is obvious that old-age lives and narrative in her short-stories should be analyzed in terms of 'topics'. By searching her short and medium-length stories, we can realize that there are two aspects of old-age lives and narrative which were chosen by her as topics of her works. One is that there are detailed depiction of finding the elderly's

04□□□_□□□□□□15□ 13. 8. 13. □□ 4:30 Page 108

meaning of existence. The other is that lives of isolation and alienation are depicted in the novels.

Park tried to clarify the elderly's existence by depicting the elderly couple and their love, and lives of the elderly who retired. Also, she delicately described isolated and alienated lives shown by gap between the elderly and their daughters-in-law(or their sons and his wives) or exclusion from the younger. Some literary works such as 「Riverside View」, 「Reunion in the Evening」, 「A Sketch of the Fading Sun 4」, 「A Sketch of the Fading Sun 5」, 「Dried Flower」, 「When a Long and Boring Movie is at the End」, and 「Thorn in a Petal」 have topics about the elderly's existential inquiry.

In addition, motif of old-age lives and narrative has orientation to topics which are shown in social relationships especially in family. Some of her works including 「Twilight」, 「Riverside View」, 「Hidden Voice of Paulownia」, 「Dining Table Where Candle is Lighten」 depict lives of isolation and impossibility of communication.

주제어 : 박완서(Park, Wan-seo), 단편소설(short-stories), 노년의 삶과 서사(old-age lives and narrative), 주제론(thematology), 창작 모티프(creation motif)

논문 접수일 2013. 05. 03.
논문 심사일 2013. 05. 24.
게재 확정일 2013. 06. 14.